2. 가구와 가족

2-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2-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2-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2-4 부모님 생존여부 및 생활비 부담
2-5 가족관계 만족도

2-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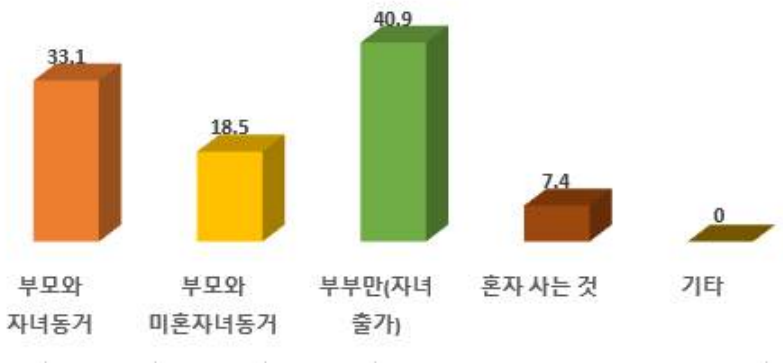
「부부만 살고 있음 40.9%」

- **이상적인 가족구성형태는 「부부만」 40.9%, 「부모와 자녀동거」 33.1%, 「부모 부모와 미혼자녀 동거」 18.5%, 「혼자 사는 것」7.4%의 순으로 나타남**

- **「부부만」은 중부권 52.5%, 북부권 41.3%, 서남부권 29.5%의 순으로 나타남 남**

- **「혼자 사는 것」은 7.4%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중부권이 12.0%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혼자 사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표 2-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단위: %)

구 분	계	부모와 자녀동거	부모와 미혼자녀동거	부부만 (자녀 출가)	혼자 사는 것	기타
2018년	100.0	33.1	18.5	40.9	7.4	
〈지역별〉						
중부권	100.0	20.4	15.1	52.5	12.0	
북부권	100.0	39.6	14.5	41.3	4.6	
서남부권	100.0	41.3	24.4	29.5	4.8	
〈성별〉						
남자	100.0	34.6	18.5	40.7	6.2	
여자	100.0	31.4	18.6	41.2	8.8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2-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주된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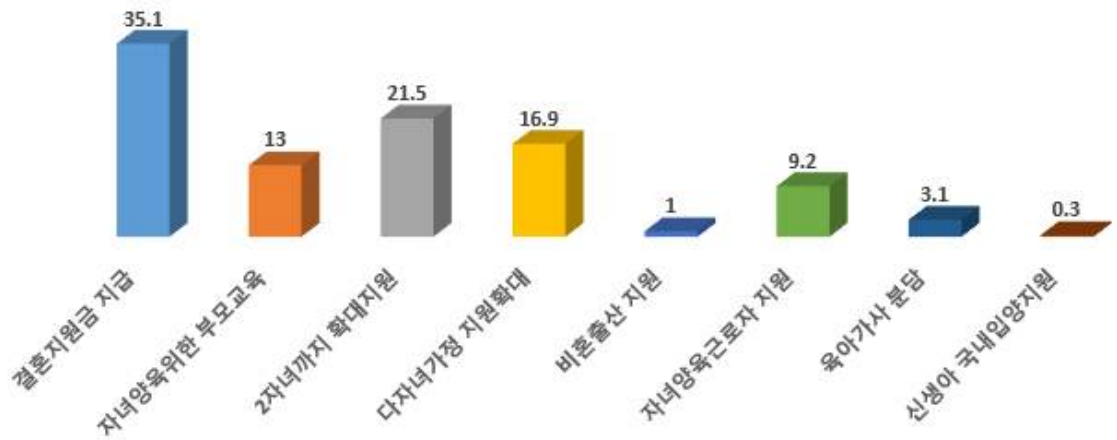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 지원금 지급」 시행해야

- **저 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결혼 지원금 지급」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며, 「2자녀까지 확대 지원(21.5%)」, 「다자녀가정 지원확대(16.9%)」,「자녀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13.0%)」등의 순임**

- 성별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결혼 지원금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2자녀까지 지원 확대」는 여자, 「다자녀까지 지원확대」는 남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경제 활동별로 살펴보면, 「결혼자금 지금」이외에 두 번째로 전문/관리직, 사무직은 「자녀 양육 근로자 지원」, 서비스/판매직 「다자녀까지 지원확대」, 농림어업, 기능노무직은 「2자녀까지 지원 확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주된응답)



<표 2-2>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주된응답) (단위: %)

구 분	계	결혼지원금 지급	자녀양육위한 부모교육	2자녀까지 확대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확대	비혼출산 지원	자녀양육 근로자 지원	육아가사 분담	신생아 국내입양 지원	기타
2018년	100.0	35.1	13.0	21.5	16.9	1.0	9.2	3.1	0.3	
〈지역별〉										
중부권	100.0	48.6	12.2	17.1	13.9	1.0	5.3	1.3	0.6	
북부권	100.0	27.2	22.3	23.1	17.3	0.8	7.5	1.8	0.0	
서남부권	100.0	27.1	8.0	24.6	19.5	1.0	13.9	5.6	0.2	
〈성 별〉										
남 자	100.0	34.2	13.8	20.2	18.6	1.3	9.4	2.2	0.3	
여 자	100.0	36.1	12.2	22.9	15.0	0.6	8.8	4.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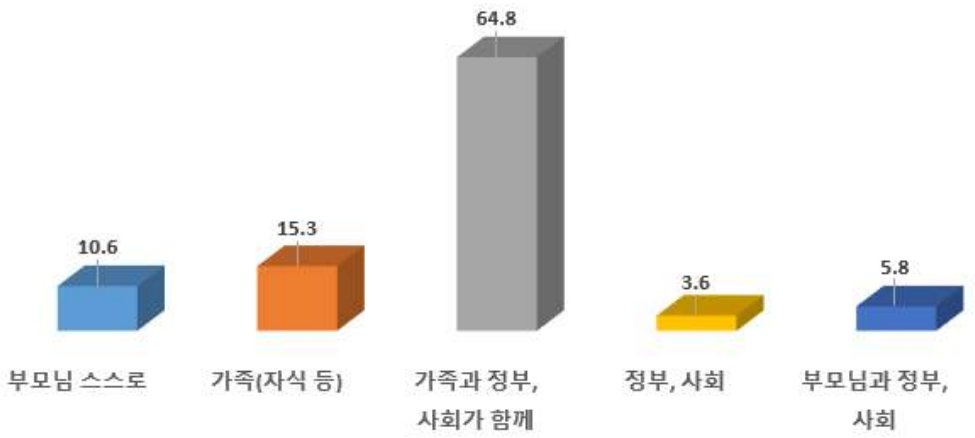
출처 : 신안군 사회조사

2-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64.8%,「가족(자식 등)」15.3%, 「부모님 스스로」 10.6%,의 순으로 나타남
-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다음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부모님 스스로」, 북부권, 서남부권은 「가족(자식 등)」이 부양해야 한다는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표 2-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구 분	계	부모님 스스로	가족(자식 등)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정부, 사회	부모님과 정부, 사회	기타
2018년	100.0	10.6	15.3	64.8	3.6	5.8	
〈지역별〉							
동권역	100.0	12.1	10.9	68.0	2.4	6.6	
전남근교권	100.0	9.6	21.5	55.2	6.7	7.0	
신도시권	100.0	9.7	15.6	67.7	2.7	4.4	
〈성 별〉							
남 자	100.0	10.6	14.5	66.0	3.4	5.6	
여 자	100.0	10.6	16.2	63.4	3.8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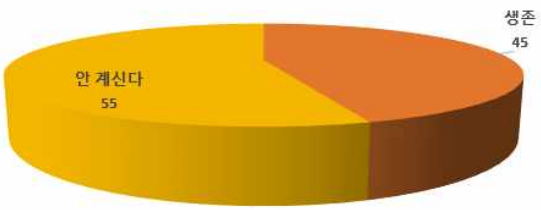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2-4 부모님 생존여부 및 생활비 부담

생활비 부담은「부모님 스스로」50.2%

- 부모님이 생존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45.0%중 생활비를 「부모님 스스로」가 50.2%,「모든 자녀」37.3%로 나타남
- 「부모님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는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미혼인 경우와 대졸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부모님 스스로」에 대해서 전문/관리 68.0%, 사무 51.2%, 서비스/판매 47.5%, 농림 어업 42.1%, 기능/노무 39.8%의 순으로 나타남

부모님 생존 여부



생활비 부담

<표 2-4> 부모님 생존여부 및 생활비 부담 (단위: %)

구 분	계	생존	소계	부모님 스스로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기타	안 계신다
2018년	100.0	45.0	100.0	50.2	4.0	6.2	2.0	37.3	0.3	55.0
〈지역별〉										
중부권	100.0	44.3	100.0	48.6	6.0	5.7	5.4	34.1	0.3	55.7
북부권	100.0	42.7	100.0	52.3	5.7	3.4	0.0	37.8	0.8	57.3
서남부권	100.0	47.1	100.0	50.5	1.3	8.3	0.0	39.9	0.0	52.9
〈성별〉										
남자	100.0	53.0	100.0	53.3	2.8	5.3	0.7	37.7	0.2	47.0
여자	100.0	35.9	100.0	45.1	6.1	7.7	4.1	36.5	0.5	64.1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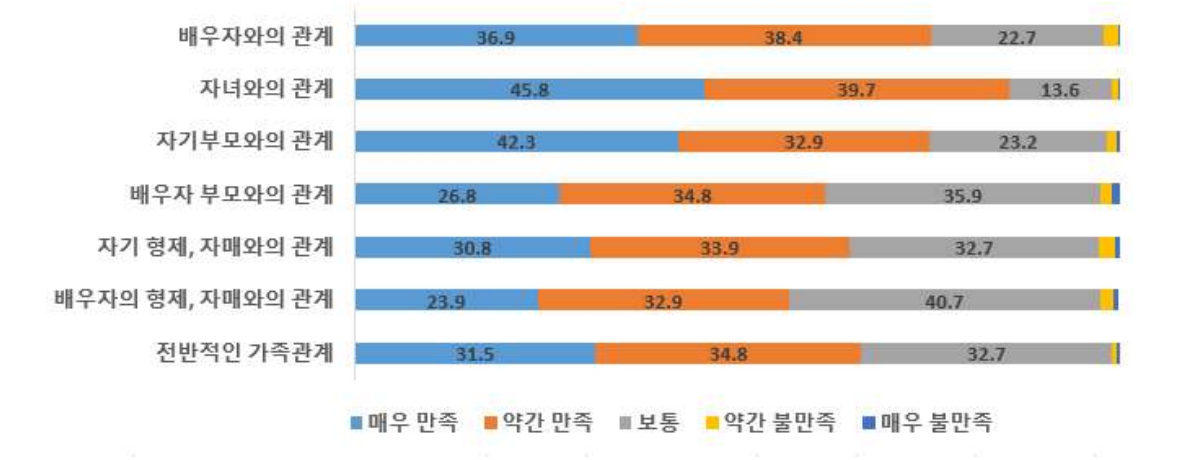
2-5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가족관계는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66.3%

- **전반적인 가족관계는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이 66.3%로나 타남**

- 자녀와의 관계는 85.5%,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매우+약간만족」은 75.3%, 자기부모와의 관계 75.2%, 자기형제, 자매와의 관계 64.7%,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61.6%, 배우자 형제, 자매와의 관계 56.8%로 나타남
-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자녀와 배우자의 관계가 높게 나타남
- 전반적인 가족관계는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가족관계 만족도



<표 2-5>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우자와의 관계	100.0	36.9	38.4	22.7	1.8	0.2
자녀와의 관계	100.0	45.8	39.7	13.6	0.8	0.1
자기부모와의 관계	100.0	42.3	32.9	23.2	1.3	0.3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100.0	26.8	34.8	35.9	1.5	1.1
자기 형제, 자매와의 관계	100.0	30.8	33.9	32.7	2.0	0.6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100.0	23.9	32.9	40.7	1.8	0.6
전반적인 가족관계	100.0	31.5	34.8	32.7	0.7	0.3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